

[제 2024-34호]

		<h1>보도자료</h1>		<p>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p>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4.5.1.(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7141 / kelly@kccla.org	담당자	Kelly Che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 LA에서 감상한다

- LA 한국문화원, 5월 16부터 K-클래식 시리즈 상영회개최



Performing Arts Screenings

공연예술 콘텐츠 상영회
클래식 시리즈

			
May 16	June 6	June 20	July 18
Kun-Woo Paik Piano Recital	Ditto Paradiso Concert	Kyung Hwa Chung & Kevin Kenner Duo Concert	Novus Quartet Concert

- ▶ 공연명 : 공연예술 콘텐츠 상영회 K-클래식 시리즈
- ▶ 내용
 - 2024년 5월 16일 (목) 7:00 pm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 2024년 6월 6일 (목) 7:00 pm '디토 파라디소' 콘서트
 - 2024년 6월 20일 (목) 7:00 pm '정경화 & 케빈 케너' 듀오 콘서트
 - 2024년 7월 18일 (목) 7:00 pm '노부스 콰르텟' 콘서트
- ▶ 장소 : 문화원 아리홀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 ▶ 주최/후원 : LA한국문화원 / 예술의 전당
- ▶ 예약 : www.kccla.org
- ▶ 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7141 공연담당 Kelly Che

LA 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서울 예술의전당(SAC)과 공동으로 5 월 16 일부터 두 달간 4 차례에 걸쳐 문화원 3 층 아리홀에서 “공연예술 콘텐츠 상영회 - K 클래식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의전당이 선별한 예술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SAC on Scree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2013 년에 시작된 SAC on Screen 은 한국의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담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클래식 시리즈는 작품에 따라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활용해 여러 대의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무대를 포착하여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연주모습을 화면에 담고, 최상의 음향 품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영회는 5 월 16 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월 16 일 (목) 7:00pm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 상영 시간 90 분

건반위의 구도자 백건우의 솔로 피아노 콘서트 공연 실황. 오랫동안 전곡 리사이틀이나 해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서 여러 작곡가의 협주곡으로 국내팬들과 만났던 백건우지만 러시아인 독주 레퍼토리로 팬과 호흡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 작품에서는 스크라빈 24 개의 전주곡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1 번을 연주한다.

[6 월 6 일 (목) 7:00 pm ‘디토 파라디소’(Ditto Paradiso) 콘서트] - 상영 시간 60 분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디토를 거쳐 간 역대 아티스트들이 모여 한 무대에서 연주하는 디토 앙상블의 10 주년 기념 공연 실황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앙상블 디토의 음악감독이자 세계적인 비올리스트인 리처드 용재 오닐 감독 아래, 한국에서 ‘클래식계 아이돌’로 불리는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와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젊은 ‘디토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K. 136 D 장조,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 번 G 장조, BWV 1048 등을 들려주며, 피아니스트 임동혁, 지용, 스티븐 린, 한지호가 바하의 네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a 단조, BWV 1065를 들려주게 된다.

[6 월 20 일 (목) 7:00 pm ‘정경화 & 케빈 케너’(Kevin Kenner) 듀오 콘서트] - 상영 시간 113 분

이 공연 실황 영상은 영혼의 동반자로 일컬어질 정도로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케빈 케너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공연으로, '비의 노래 소나타'로 불리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 1 번 G 장조,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 3 번 c 단조,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 장조가 연주되어 두 연주자의 환상적인 호흡을 만날 수 있다.

[7 월 18 일 (목) 7:00 pm '노부스 콰르텟'(NOVUS Quartet) 콘서트] - 상영 시간 95 분

젊은 현악 사중주, 노부스 콰르텟은 2007년 창단된 단체로 바이올린 김재영, 김영욱, 비올라 김규현, 첼로 문웅휘가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연주로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주회마다 평론가와 일반 관객의 찬사와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고 2014년 한국 실내악단으로는 최초로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레스피기 도리아 선법에 의한 현악 사중주 Op.144,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12번 F 장조 Op.96 '아메리카',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6번 f 단조 Op.80 등을 들려주게 된다.

정상원 LA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클래식 시리즈 상영회는 백건우 정경화 등 한국을 대표하는 K-클래식 1세대 음악가들의 전설적인 공연,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K-클래식 아티스트들의 연주 기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생생한 음향과 연주자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볼 수 있는 현장감 가득한 관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영은 무료이나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사전 예약은 KCCLA 웹사이트 www.kccla.org에서 가능하다. 공연 문의는 kelly@kccla.org 또는 전화 (323) 936-7141로 하면 된다. 끝.